

## 구공탄집과 솜틀집

10여 년 전에 젊은 교수들 모임에서 세미나 강사로 나와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 세미나의 주제는 패러다임이었다. 교수들 말이 패러다임의 뜻을 설명해도 학생들이 개운해하지 않으니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고 했다.

당시만 해도 패러다임이란 말은 일반에게 다소 낯선 용어였다. 나는 세미나에 나가 우리가 주변에서 경험한 사례를 토대로 패러다임(Paradigm: 틀)과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을 설명했다. 이때 설명한 내용이 다음 표에 나타나 있다.

먼저 구공탄집과 도시 가스의 패러다임을 설명했다. 내가 대학을 다닐 때인 1960년대만 해도 서울 시내에는 구공탄을 잔뜩 싣

고 바쁘게 움직이는 트럭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 내가 다니던 학교는 상계동 방면에 있었는데, 이른 아침에 학교를 가노라면 구공탄을 가득 실은 트럭이 군단 행렬을 이루듯이 시내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패러다임과 패러다임 전환의 예를 들어 보자. 연탄 회사를 운영하는 김 회장이 있다. 자수성가한 그는 연탄 회사를 30여 년간 운영하여 크게 성공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해외 출장을 갔다 온 조카가 그에게 구공탄집은 오래 못 갈 것 같으니 도시 가스로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것이 아닌가?

김 회장은 도시 가스가 무엇인가 내용을 알아 보았다. 당시만 해도 도시 가스가 보편화되기 전이어서 LPG 가스가 선보일 때였다. 조그만 통에 가스를 집어 넣고 가스를 다 쓰면 통을 교환해 주는 것이다. 가스를 다 썼다고 연락이 오면 자전거로 도시 가스를 배달해 주는 광경을 보고 김 회장은 대단치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연탄 회사는 구공탄을 싣고 줄줄이 시내로 향하는 트럭 군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가? 김 회장은 왜 연탄 회사에서 도시 가스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전의를 다지기 위해 다음과 같은 표어를 책상 앞에 붙여 놓았다.

‘겨울이 존재하는 한, 온돌방이 존재하는 한 구공탄은 영원하리라.’

전의를 불태우며 구공탄에서 도시 가스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거부한 김 회장은 그 후 어떻게 되었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겨 내지 못하고 도시 가스의 거센 물결에 쓸려 살아남지 못했다.

숨틀집과 캐시밀론 이불집도 설명했다. 한때 골목마다 숨틀집이 있었다. 숨틀집을 운영하는 황 여사에게 일본을 여행하고 온 여고 동창생이 말했다. “이제 숨틀집에서 캐시밀론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일본에 갔더니 솜이불은 자취를 감추고

####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의 사례

구공탄집 - 도시 가스

숨틀집 - 캐시밀론 이불

얼음 가게 - 냉장고

종이 봉투 - 비닐 봉투

우마차 - 용달차

LP - CD

다방 - 카페

탁구장 - PC방

모두 캐시미론을 쓰더라.” 황 여사는 캐시미론을 구경했다. 솜이 불보다 가볍고, 얇고, 품위가 없어 보였다. 솜이불같이 두툼하고 누르는 맛이 없지 않은가? 황 여사도 솜틀집에 다음과 같은 구호를 붙여 놓았다.

‘신혼 부부가 존재하는 한, 원앙금침이 존재하는 한 솜틀집이여, 영원하라.’

황 여사도 전의를 불태우며 솜틀집 패러다임을 고수하다가 캐시미론 이불의 도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겨 내지 못하고 솜틀집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60년대에는 주택이 골목마다 얼음 가게가 있었다. 무더운 여름 날 손님이 오거나 식구들끼리 모여 앉아 수박 화채를 먹을 때 얼음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미국 출장을 갔다 온 동네 친구가 얼음 가게 주인에게 말했다. “미국에 가 보니 얼음 가게가 모두 냉장고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더라. 얼음 가게를 그만하고 냉장고로 전환하는 것이 어떤가?” 얼음 가게 주인도 얼음 창고 문에 구호를 써 붙였다.

‘무더운 여름이 존재하는 한, 수박 화채가 존재하는 한 얼음 가게는 영원하다.’

그도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겨 내지 못하고 얼음 가게를 닫았다.

한때 부지런한 주부들은 자녀의 학비를 보태기 위해 종이 봉투

를 만들어 시장에 파는 부업을 하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시장에 종이 봉투를 전해 주러 심부름을 갔던 막내딸이 돌아와 말했다. “옆가게의 콩나물집 아저씨는 종이 봉투에서 비닐 봉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라고 했어.” 주부는 한동안 생각했다. 그리고 안방 입구에 표어를 붙여 놓았다.

‘벌치, 번데기가 존재하는 한 종이 봉투도 존재한다.’

이 주부도 비닐 봉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겨 내지 못하고 부업을 잃었다.

우마차와 용달차의 이야기도 했다. 초기의 용달차는 화물 적재함 공간도 적고 엔진의 힘도 약해서 고갯길을 만나면 고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마차를 끌던 마부가 소에게 말했다. “저것 가지고 우리와 게임이 되겠냐?” 소가 대답했다. “게임이 안 되겠구만요.” 마부는 그날 밤, 외양간에 다음과 같은 표어를 써 붙였다.

‘이사철이 존재하는 한, 김장철이 존재하는 한 이 거리는 우마차가 지킨다.’

레코드를 많이 모은 음악 애호가도 있었다. 어느 날 방송국에 다니는 친구가 말했다. “앞으로는 LP에서 CD로 패러다임이 바뀔 것 같으니 LP 수집을 그만하고 CD 수집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음악 애호가는 생각했다. 어렵게 사 모은 클래식 음반, 여행 갈 때마다 사 모은 오페라 전집……. 한참을 생각하던 음악 애호

가는 비장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클래식 애호가도 존재하는 한, 오페라 아리아도 존재하는 한 LP는 영원하다.”

그는 요즘 LP를 즐길 수 없다. 전축 생산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지하 다방을 운영하던 김 마담이 있다. 김 마담이 서울을 다녀온 후 길 건너편에서 다방을 운영하던 라이벌 박 마담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서울은 지하 다방이 줄어들고 1층에 카페를 내더라. 그런데 웃기는 게 뭔지 아니? 창이 무지 넓어. 내부가 흰색이 보이고, 조명도 무지 밝아. 더 놀라운 건 젊은 남자 애들이 차를 날라 줘. 우리도 지하 다방에서 카페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어떨까?” 한참을 고민하던 박 마담은 다방 카운터 밑에 다음 경구를 적어 붙였다.

‘어두컴컴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동네 유지들, 차 나르는 아가씨가 보고 싶어 차를 자주 마시는 파견소장, 구석 자리만 골라 앉는 동네 청춘 남녀가 있는 한 우리는 지하를 지킨다.’

요즘은 박 마담이 뭘 하고 지내는지 아무도 모른다.

한때 탁구장은 청춘 남녀가 교제를 시작하는 장소로 인기가 높았다. 어느 날 대학 다니는 아들이 탁구장 주인에게 말했다. “탁구장에서 PC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탁구장 주인은 한참을 생각했다. 이 탁구장을 통해 결혼에 성공한 커플이 꽤 많지 않은가? 그래서 그도 탁구장 입구에 선언문을 붙였다.

‘탁구 치며 교제가 시작되는 청춘 남녀가 존재하는 한, 저녁내기 탁구 시합이 이 동네에 존재하는 한 탁구장은 영원하리라.’

그가 운영하던 탁구장은 없어지고 PC방이 이사 왔다고 들었다.

### 패러다임, 제대로 이해하자

우리가 접하는 국가의 각종 정책 구호를 보면, 국가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은 아직도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다음 표에서 굵은 글씨체로 쓴 구호는 우리가 자주 접했던 정부의 정책 구호들이다. 정책 담당자들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한때 정부의 구호 중에 ‘10% 경쟁력 올리기’라는 구호가 있었다. 나는 교수들에게 물었다. “구공탄집이 10% 경쟁력을 올리면 도시 가스를 이기는가?” 경제 부처에서 우리 제품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데 대한 대책으로 내세우는 구호가 있다. ‘고임금-저효율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수들에게 반문했다. 숨



###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 구호

- 구공탄집이 10% 경쟁력을 올리면 도시 가스를 이기는가?
- 숨틀집이 고임금-저효율을 해소하면 캐시밀론 이불을 이기는가?
- 얼음 가게가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면 냉장고를 이기는가?
- 종이 봉투 부업에 온 가족이 합심전력하면 비닐 봉투를 이기는가?
- 우마차의 소와 마부가 일치단결하면 용달차를 이기는가?
- LP, 다방, 탁구장이 구조 조정, 투명 경영, 계열사 정리, 공적자금 지원을 하면 CD, 카페, PC방을 이기는가?

틀집이 고임금-저효율을 해소하면 캐시밀론 이불을 이길 수 있는가?

아직도 '가격경쟁력만이 살 길이다'라는 구호가 아까워 버리지 못한다. "얼음 가게가 가격경쟁력을 강화하면 냉장고를 이기는가?" 온 국민이 '합심전력하여 위기를 넘기자'는 구호도 있었다. 그래서 묻는다. 종이 봉투 부업에 온 가족이 합심전력하면 비닐

봉투를 이길 수 있는가?

합심전력과 함께 일치단결하자는 구호도 자주 듣는다. 또 묻는다. "우마차의 소와 마부가 일치단결하면 용달차를 이기는가?" IMF 이후 각종 정책 구호가 난무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LP, 다방, 탁구장이 구조 조정, 투명 경영, 계열사 정리,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 CD, 카페, PC방을 이기는가?" 잘 하면 이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구호에 집착하는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국가의 책무를 맡은 정책 담당자들이 세상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지 않은가? 구호를 만들고 나서 정책을 세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올바른 정책을 추진해 나가자니 엄두가 안 나서 그럴까? 얹잡아 보고 아무 이야기나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구호만 번갈아 외쳐 대면서 더 큰 위기를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 번 요약하자. 패러다임이란 무엇인가? 앞서 설명한 예에서 보는 것처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일수록,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패러다임의 전환이 힘들고 큰 저항에 부딪힌다. 우리 나라는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예외 없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한 나라이다.

대학은 어떤 표어를 써 붙이고 있을까? 혹시 '입시 열풍이 존재하는 한, 학부모의 교육열이 존재하는 한 대학은 영원하다'는 표

어를 붙여 놓고 안주하는 것은 아닐까? 대학 교육과 교과 과정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 동안 우리 사회는 패러다임 전환을 소리 높여 강조해 왔다. 그러나 그 사이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시도한 대부분의 노력은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교육 철학과 교과 과정은 어떤가? 대학이야말로 정부, 기업에 앞서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한다. 대학의 창의적 교육이 시작되어야 정부와 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되는 것 아닌가?

역사에 나타난 인류 발전 과정을 볼 때, 사회 발전은 진화와 변혁이 번갈아 반복되면서 이루어져 왔다. 요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은 변혁이다. 변혁의 내용은 무엇인가? 기술 혁신, 정보 혁명, 국제화 조류, 경제권역의 형성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급류에서 살아남으려면 대학의 교육 철학, 교육 목적, 이를 이루기 위한 교과 과정의 대대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 이공계 위기는 국민의 위기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은 어떤가? 기업들은 뭐라고 말할 것인가? '선진국이 존재하는 한 기술 도입은 영원하리라'고 표어를 붙여 놓은 것은 아닐까?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일전에 한 잡지사에서 이공계 기피 현상을 걱정하며 이 문제의 해소 방안을 물어 왔다. 나는 기고문에서 간단히 대답했다. "살고 싶으면 해결하고, 죽고 싶으면 이제까지 해 왔던 대로 그냥 놓아 두면 된다." 이공계와 산업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이공계 위기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했다.